

전통과 혁신: 石堂 공방과 20세기 책거리의 도전

김수진(金秀珍)

I. 국립중앙박물관 〈민화 책거리〉 12폭 병풍

II. 석당 공방 책거리와 초본

III. 석당 공방 책거리와 隱印

IV. 석당 공방 책거리에 나타난 개인 정보

V. 석당 공방 책거리에 보이는 첨단 제품

VI. 20세기 초반 책거리의 제작 양상과 계보

VII. 책거리에서의 전통 및 혁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주요 논저:

「누가 김정희를 만들었는가?: 김정희 명성 형성의 역사」, 『대동문화연구』109 (2020); 「조선 후기 민간 사례용 병풍 연구」, 『한국학』[(구)정신문화연구]156 (2019); “Rivalry for Cultural Supremacy: Construction of Architectural Space and its Representation in the 19th Century Joseon Dynasty” 『東アジアの庭園表象と建築・美術』(昭和堂, 2019); “Desire for Empire: A painted folding Screen of Sea, Cranes and Peaches at the Honolulu Museum of Art,”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Vol.12(2018)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민화 책거리〉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국내의 소장품 총 14점을 발굴하여 ‘석당’ 공방 제작품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이 작품군에 찍힌 印章을 토대로 이들이 제작된 공방의 이름을 石堂으로 명명했다. 둘째, 작품 14점의 도상을 분석하여 이들이 제작된 시기가 1920년대일 것이라는 점을 추론했다. 셋째, 이 작품군에 드러난 지명과 주소 같은 정보를 통해 이 작품군이 주문화가 아니라 半기성화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했다. 넷째, 이 작품에 보이는 다양한 첨단 제품의 도안을 분석하여 이것이 中華의 몰락 및 歐美의 부상을 포함한 새로운 외교 관계를 표상하며 구미로부터 물건이 직수입되기 시작한 통상 환경의 변화를 예증한다는 사실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이형록-이덕영 계열의 책거리와 석당 계열 책거리를 비교함으로써 시각 문화에 있어 전통의 계승 및 혁신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책거리, 책가도, 은인, 석당, 초본

전통과 혁신: 石堂 공방과 20세기 책거리의 도전

김수진(金秀珍)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I. 국립중앙박물관 〈민화 책거리〉 12폭 병풍

1998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한 유물번호 신수14802번은 '책걸이 민화병풍'이라는 유물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도 1). 이 작품은 12폭 병풍으로 각 폭의 크기는 131.2×32.3cm이다. 일반적으로 12폭 병풍은 높이가 2m가량 되고 너비도 대형인 데 반해 이 유물은 화폭 수에 비해 크기가 큰 편이 아니다. 이 유물은 다양한 책과 물건을 독립적으로 나열한 형식으로 형광빛이 도는 핫핑크, 코발트 블루, 고동색 안료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초침을 포함한 로마자로 된 산호걸이 시계, 아라비아 숫자로 된 회중시계와 탁상시계, 영문 글씨가 적힌 담배갑의 도상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매



도 1. 책거리도 12폭 병풍, 20세기, 면본채색, 131.2×386.4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14802)



도 2, 책거리도 8폭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199×330.4cm, 하버드 아트 뮤지엄



도 3, 책거리 8폭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각 117.5×29.3cm, 마이아트옥션 2019년 출품본



도 4, 책거리 8폭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각 111.5×26.5cm, 케이옥션 2019년 출품본

화면마다 곳곳이 화분과 古銅器 항아리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동기에는 金粉을 들렸는데 이 금분은 다른 금속 기물에도 칠해져 금속성의 느낌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가장 오른쪽 1면에는 ‘扶安郡內 戊午五月’이라 적힌 편지 봉투가 필통에 꽂혀 있는데 ‘무오 오월’ 글씨 아래에 누군가 연필로 ‘1918’이라는 숫자를 작게 써두었다. 육십갑자를 따져보면 1918년이 무오년에 해당한다. 그 옆으로는 ‘石堂’과 나뭇잎 모양이 새겨진 두 과의 인장 및 ‘和風甘雨’라 적힌 먹이 있다. 2면에는 여러 향로가 있으며 가장 하단에 부지깥이가 꽃힌 화로가 있다. 3면에는 과일 배가 있으며 참나리 꽃 및 흰 철쭉이 핀 꽃병, 밤 한 바구니가 등장한다. 4면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탁상시계와 복숭아가 보인다. 5면에는 가지, 옥수수, 여주가 있고 벌어진 안경집 사이로 안경이 있다. 6면에는 복숭아, 연꽃, 순무가 보이며 물고기가 들어 있는 유리 어항이 놓여있다. 7면에는 포도와 그릇더미가 등장한다. 8면에는 석류, 불수갑, 금테 안경 및 안경집, 가락지 및 알반지, 로마자로 된 산호걸이 시계가 있다. 9면에는 감, 국화, 부채, ‘多男子’라 적힌 붓이 보인다. 10면에는 담배와 회중시계가 있으며 밤과 밤의 가시 껍데기가 놓여있다. 11면에는 석류, ‘完山學士’라 새겨진 인장, 파란색 유약이 흘러내린 컵 도상이 등장한다. 12면에는 오얏꽃, 불수갑, 球根 화초 화분이 놓여있다. 이 작품에는 전통적인 책거리 소재도 있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상들이 여럿 나타난다. 그런데 이 작품과 동일한 도안을 공유한 작품이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의 기관과 개인 소장으로 12점이 더 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작품과 유사한 도안을 가진 초본도 가회민화박물관에 1본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도 1~도 14). 이 작품들에는 특정한 양식상의 특징이 공유되는 한편 ‘石堂’이라는 인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 석당 책거리 13점과 초본 1점

번호	형식	소장 기관	약칭	비고	도판번호
0	초본 7폭	가회민화박물관	가회 초본	본래 8폭 또는 10폭이었을 것으로 추정	도14
1	12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국박	-	도1
2	8폭 병풍	하버드 아트 뮤지엄	하버드	-	도2
3	8폭 병풍	마이아트옥션 작품	마이아트	-	도3
4	8폭 병풍	케이옥션 작품	케이옥션	-	도4
5	10폭 병풍	김종춘 구장	김종춘	현재 소장처 알 수 없음	도5
6	10폭 병풍	선문대학교 박물관	선문대	-	도6
7	8폭 병풍	일본 고려미술관	일본고려	-	도7
8	10폭 병풍	민병우 구장	민병우	현재 소장처 알 수 없음 10폭이지만 도판은 6폭만 알려져 있음	도8
9	6(10)폭 병풍	고정애 소장	고정애	6폭은 책거리 4폭은 화조화로 장황됨	도9
10	8폭 병풍	호림박물관	호림	두 점의 초본이 완전 일치 다른 작례들보다 높이가 낮은 枕屏 형식	도10
11	8폭 병풍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공사관		도11
12	일부만 전함	김달호 구장	김달호	병풍에서 산략된 것으로 추정	도12
13	편화 2점	조선민화박물관	조선	병풍에서 산략된 것으로 추정	도13

이 글에서는 우선 국립중앙박물관 본을 중심으로 나머지 12점의 작품과 초본 한 점을 포함한 총 14점의 작품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하나의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작품군에 찍힌 인장을 토대로 공방의 이름을 ‘석당’으로 명명하는 한편 도상 분석을 통해 작품의 제작 시기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 드러난 개인 정보를 통해 이 작품들이 기성화로 제작된 것인지 주문화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한 후 작품 속 다양한 침단 제품의 도안이 가지는 사회문화사적 의의를 추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이형록-이덕영 계열의 책거리와 석당 계열의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예술에 있어 전통의 계승 및 혁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도 5. 책거리 10폭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각 102×36cm, 김종춘 구장



도 6. 책거리 10폭 병풍, 20세기, 저본채색, 각 79.2×33.2cm, 신문대학교 박물관



도 7. 책거리 8폭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각 103.5×32cm, 일본 고려미술관



도 8. 책거리 10폭 병풍 부분, 20세기, 견본채색, 각 114×28cm, 민병우 구장



도 9. 책거리 · 화조도 10폭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각 113.5×32.5cm, 고정애



도 10. 책거리 8폭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각 60.7×32.7cm, 호림박물관



도 11. 책거리 8쪽 병풍, 20세기, 견본채색, 각 61.8×33.2cm,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도 12. 책거리 일부, 20세기, 크기 및 재료 미상, 김달호 구장



도 13. 책거리 2쪽, 20세기, 견본채색, 각 47×29cm, 조선민화박물관

도 14. 책거리 7쪽 초본, 20세기, 지본수묵, 각 67×34cm, 가회민화박물관

표 2. 석당 공방 책거리 도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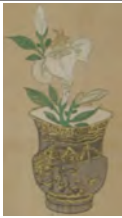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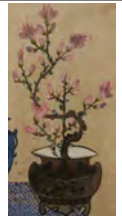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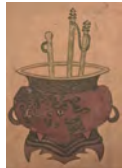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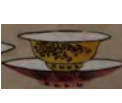

	0.가회초본	1.국박	2.하버드	3.마이아트	4.케이옥션
꽃꽂이					
책더미					
밤바구니	—				
부지깥이 향로				—	
그릇더미					—

II. 석당 공방 책거리와 초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민화 책거리〉 병풍에는 꽃꽂이, 꽃병, 책더미를 포함한 器皿과 折枝의 도상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초반에 기명절지도가 유행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석당 계열 작품 중 가장 화폭 수가 많으며 가장 다양한 도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정교한 묘사력이나 양호한 보존상태 면에서도 기준작이 될 만하다. 하버드 본과 마이아트옥션 본도 보존 상태가 좋다. 케이옥션 본은 도안 자체는 뛰어나나 현재 화면 전반에 클리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 편이다. 김종춘 구장품과 민병우 구장품은 현재의 소장처는 알 수 없으나 다양한 기물 도안이 포함된 수작이다.¹ 고정에 소장품은 책거리와 화조화를 한 폭씩 번갈아 배치하여 6폭은 책거리, 4폭은 화조화로 꾸몄다.² 호림박물관 본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소장본은 비교적 최근 현재의 소장기관이 구입

1 민병우 구장품과 고려미술관 본은 최근 케이 블랙(Kay E. Black)의 신간을 통해 알려졌다. 케이 블랙은 이 두 작품에 ‘석당’ 인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석당’이 어떤 화가의 호일 것이라 추정했다. Kay E. Black, *Ch'aekko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Seoul: Sahoipyiungnon Academy, 2020), pp.83-88.

2 고정에 소장품은 2019년 4월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열린 〈민화인 개인소장 ‘좋은민화’-숨은 보석, 빛을 찾다〉 전시에 출

5. 김중춘	6. 선문대	7. 일본고려	8. 민병우	9. 고정애	10. 호림	11. 공사관
						
						
-			-			
						
			-			

했는데 두 작품의 초본이 일치한다.³ 비록 색감 차이는 있으나 두 작품은 크기나 도안이 동일하여 같은 초본을 활용한 것이 분명해보인다. 김달호 구장본은 작품 전체의 도판이 출간된 적이 없어 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⁴ 조선민화박물관 소장본은 현재 2점의 단품으로 전하나 본래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표 2>는 석당 계열 작품 중 단품으로 전하는 김달호 구장본 및 조선민화박물관본을 제외한 12점에서 대표적인 도안 여섯 가지를 비교한 결과이다.⁶ <표 2>에서 정리한 도상 여섯 가지는 ① 金粉으로 그린 꽃병과 꽃, ② 핫핑크와 코발트블루 裝幀 도안이 돋보이는 책더미, ③

품되었다. 월간민화, 『숨은 보석 빛을 찾다: 민화인 개인소장 '좋은 민화' 전』(서울: 디자인믹, 2019), p.167.

3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소장품은 2018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워싱턴에 파견되어 계신 김상엽 선생님께서 촬영해주셨다. 호림박물관 소장품은 2020년 <서가의 풍경: 책거리·문자도> 전시에서 소개되었다. 도판 확보는 유진현 학예사의 도움을 받았다.

4 김달호 구장본은 윤열수, 『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의 지역적 특성과 작가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78-79에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 가회민화박물관 윤열수 관장은 김종춘 구장본과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초본의 도판을 제공해주셨다. 김달호 구장본은 1988년 12월 9일에 촬영한 것이 확인된다.

5 조선민화박물관 소장본은 1996년에 구입되었다. 관련 정보는 오석환 관장님께서 제공해주셨다.

6 <표 2>는 <표 1>에서 정리한 번호와 약칭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표 3. 석당 공방 책거리에서의 탁상시계 도안



도 15. (도 1)의 담배 부분



도 16. 단풍 담배



도 17. 멜론 담배



도 18. (도 6)의 선문대 본 성냥

밤을 담은 바구니, ④ 부지깽이를 꽃은 향로, ⑤ 그릇더미이다. 꽃병과 부지깽이를 꽃은 향로는 대부분 고동색 톤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금분을 둘러 금속 느낌을 살렸다. 책더미는 포장 패턴에 보이는 세부 디자인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그릇더미의 경우 초본, 하버드 소장본, 마이아트 출판본에 비현실적인 도안을 삽입해 재치를 강조했다.

총 14점의 책거리의 세부를 비교하다 보면 각 작품마다 묘사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탁상시계 도안을 비교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아라비아 숫자로 된 시침과 분침, 시계 안에 작게 마련된 초시계의 초침까지 정교한 묘사를 보인다(표 3). 마이아트 출판본은 심지어 탁상시계 판 속 브랜드명까지 묘사되어 있다.⁷ 이에 반해 하버드 소장본과 선문대 소장본은 시계면의 뚜껑이 닫힌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릇을 포개 둔 도상과 밤을 비교해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다른 본들에 비해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그런데 작품의 수준 차이는 필력의 차이뿐 아니라 안료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비록 성분을 분석해보지는 못했으나 육안으로만 봐도 반짝이는 진짜 금분과 색감만 훑내 낸 안료 사이에는 수준차가 확연하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이 일군의 책거리는 한 사람의 필치가 아니며 개개의 작품 간에는 제작 비용의 차이도 컸으리라 짐작된다.

이 작품군에는 제작 시기를 알려주는 단서가 몇 가지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는 1쪽 편지 봉투에 ‘부안군내 무오오월’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여기서 무오년은 1918년이나 1858년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박 본 10쪽에 ‘10 Cigarette, 定價六錢, MELON(MAPLE?), Sweeten’이라고 적힌 담

7 이 작품의 두 폭 탁상시계에 영문으로 적힌 브랜드명은 ‘DMOI’ 또는 ‘DMQI’라고 읽히며 6쪽에 있는 회중시계 도상에는 ‘DMCI’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브랜드를 가진 시계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DOMI’라는 브랜드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시계가 유통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OMI’ 브랜드는 1950~196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구미 골동 시장에서는 ‘DOMI Paris’라고 적히고 소련(USSR)에서 제작한 회중시계가 유통되고 있다. 마이아트 출판본에 그려진 시계가 ‘DOMI’ 브랜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권민석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다.

벧갑이 등장한다(도 15). ‘MELON(MAPLE?)’이라 적힌 알파벳은 글씨를 썼다기보다는 그렸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는 1921년 이후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생산한 ‘멜론 참외’ 혹은 ‘메이플 단풍’ 담배 정도를 흥내 낸 것으로 보인다(도 16, 도 17). 따라서 무오년은 1918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작품은 1921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아울러 선문대 본에도 제작 시기를 가늠하게 하는 도상이 등장한다. 상자의 앞면에는 ‘朝鮮’, 옆면에는 ‘貳拾本入’이라 적혀 있다(도 18). ‘조선’은 朝鮮燐寸株式會社에서 1917년부터 생산한 성냥이다. 성냥은 1886년 제물포에 자리를 잡은 독일계 회사인 세창양행 무역상사에 의해 처음으로 수입되었는데 조선인촌주식회사는 1917년 10월 4일에 우리 자본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성냥 공장이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보면 이 작품군은 대략 1921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작품군의 도안, 묘사력, 안료의 수준차를 감안하면 특정 기물 묘사에 부분 초본의 활용을 공유하되 工賃에 따라 畵品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 책거리 그림은 다양한 기물 도안의 묘사를 요구하는 화목이기 때문에 묘사가 어려운 기물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작품의 가격도 높아졌을 것이다. 현재 가회민화박물관에 전하는 초본 외에도 책거리의 초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례가 알려져 있다.⁸ 복잡한 도안을 가진 화목인 책거리 제작에 있어 초본의 활용은 공방의 제작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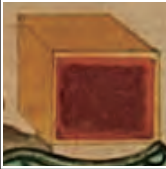





Ⅲ. 석당 공방 책거리와 隱印

책거리에는 石印材와 함께 눌힌 인장의 印面을 묘사하여 작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은인의 전통이 있다. 초기에 제작된 책거리는 실제 오브제를 재현함으로써 그림을 진짜 서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먹으로 쓴 화가의 낙관으로 인해 ‘시각적 幻影’이 파괴되지 않도록 화가의 인장은 다양한 오브제 사이에 무심히 배치되었다. 작가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은 착시 효과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운치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인’의 전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형식을 달리하며 계승되었다. 이로 인해 궁중 계열부터 민간 제작에 이르기까지 책거리에는 다양한 은인이 포함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석당 공방 작품군에도 은인의 도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14점의 작품 가운데 인장이 없는 작품은 케이옥션 본과 조선민화박물관 본뿐이다. 조선민화박물관 본은 본래 병풍이

8 책거리 초본을 논의한 성과는 정병모,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파주: 돌베개, 2012), pp.78-80; Sunglim Kim, “Chaekgeori: Multi-Dimensional Messages in Late Joseon Korea,” *Archives of Asian Art* 64(1) (2014), pp.23-25. 현재 가회민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본이 모든 석당 계열 작품의 시원이라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Sunglim Kim의 연구에 소개된 미국 개인 소장 초본은 1932년의 기년이 있는데 지시사항 모두가 한자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가회민화박물관 초본에 있는 글씨는 모두 한글이다. 따라서 석당 계열의 초본은 그 자체로서 세대를 거듭하며 새로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표 4. 석당 공방 책거리에 보이는 인장 도상

1. 국박	8. 민병우	5. 김종춘	9. 고정애	7. 일본고려	3. 마이아트
					
석당	석당	석당	석당	석당	(석당 추정)
6. 선문대	2. 하버드	10. 호림	11. 공사관	12. 김달호	0. 초본
					
서도	-	임오산 서학	임오산 서학	석란	석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낱장으로 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장이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마이아트 본은 본래 ‘석당’ 글씨가 새겨진 각인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붉은 안료로 가칠이 된 상태이다.⁹ 총 12점 가운데에는 ‘석당’이라는 인장이 찍힌 본이 가장 많다. 그런데 사실상 ‘석당’이라는 인장이 찍힌 작품 간에도 필력 차이가 커서 이것이 한 사람의 호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석당’을 이 책거리 군을 제작한 공방의 이름으로 보고자 한다. <표 4>는 석당 계열 책거리의 인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석당 공방 책거리에는 ‘석당’ 외에도 ‘石蘭’, ‘棲島’, ‘林五山 棲鶴’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이 가운데 ‘석당’ 인장이 찍힌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화격이 높고 다른 작례에 비해 다양한 오브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석당 인장이 찍힌 작품이 가장 먼저 1군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고 나머지는 2군의 작가 혹은 다음 세대에서 제작한 그룹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중에서도 김종춘 본과 민병우 본의 경우는 인장의 묘사가 거의 일치하고 책터미나 꽃병의 묘사에서도 유사한 필치를 보여 동일한 작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정애 본과 고려미술관 본은 비록 ‘석당’이 찍혀 있기는 하나 김종춘 본 및 민병우 본과는 필치 자체가 달라 같은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석당 공방은 이미 당대에 여러 작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세대를 달리하여 초본을 계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책거리 속 은인 전통은 李亨祿(1808~1874 이후)이 그린 책거리 작례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¹⁰

9 마이아트 본의 인장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칠된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석당’이 날인되도록 실제 도장과 같이 반전해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이아트 본의 인장 묘사 방식은 본래 민병우 본 및 김종춘 본과 유사한 계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해 주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권민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0 삼성미술관 Leeum 본 이형록 인장에 대해서는 이원복, 『책거리 소고』, 청어 이구열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근대한국미술논총』(서울: 학고재, 1992), pp.114~115.

표 5. 책거리에 보이는 여러 종류의 인장

					
1. 全黃峰印	2. 李應泳印	3. 韓應淑印	4. 姜達秀印	5. 張漢宗印	6. 釋益信印
					
7. 朴秉燾印	8. 霞巖	9. 惠春	10. 石泉	11. 梅隱	12. 松年道人
					
13. 小石	14. 小石	15. 壽福康寧	16. 福壽	17. 文字之祥	18. 楚山府使印信

이형록은 두 차례의 개명을 통해 應祿과 宅均이라는 異名을 얻었고 이를 꾸준히 책거리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여러 작품에서 은인을 발견할 수 있다.¹¹ 그런데 이러한 은인의 전통은 작가의 이름뿐 아니라 字號나 字句를 넣은 사례로 점차 다양해진다. 〈표 5〉는 작가의 이름을 넣은 경우, 자호를 넣은 경우, 일반 자구를 넣은 경우, 官印을 넣은 경우를 보여준다.¹² 아울러 〈표 5〉는 전황봉, 이덕영, 한응숙, 강달수, 석익신과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책거리 작가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¹³ 아울러 매은, 하암, 혜춘, 석천, 송년도인, 소석과 같은 자호를 쓴 화가 혹은 공방에서 책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¹⁴ 또한 ‘수복강녕’이나 ‘복수’ 같은 일반 명사를 인장으로 그린 경우도 있다.

11 이형록은 1864년 그의 나이 57세에 이응록으로 개명했으며 1871년에는 64세의 나이로 이택균으로 개명했다. 이형록의 개명 시기별 작품 제작 양상은 정병모, 『세계를 담은 조선의 정물화 책거리』(서울: 다함미디어, 2020), pp.97-121.

12 〈표 5〉에 보이는 부분 도판의 작품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민속박물관, 2. 국립중앙박물관, 3. 개인 소장, 4. 개인 소장, 5. 경기도박물관, 6. 소장처 미상, 7. 가회민화박물관, 8. 부산박물관, 9. 개인 소장, 10.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11. 케이옥션출품본, 12. 미국 개인 소장, 13. 호림박물관, 14. 개인 소장, 15~16. 국립고궁박물관, 17. 국립중앙박물관, 18.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표 5〉의 “전황봉인”과 “박병훈인”의 인장 해독에 도움을 주신 류승민 문화재감정관께 감사드린다.

13 이덕영의 인장을 밝힌 성과는 민길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 필 책가도: 덕수4832 〈책가도〉를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16(2015), pp.77-78; 한응숙의 인장을 밝힌 성과는 Kay E. Black and Edward W. Wagner, “Ch’aekkōri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 *Archives of Asian Art* 46(1993), pp.63-64; 석익신 및 ‘조산부사인신’의 인장을 밝힌 성과는 윤열수, 앞의 논문(2006), pp.75-77; 강달수의 인장을 밝힌 성과는 Kay E. Black, 앞의 책(2020), pp.136-1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책거리 작품의 소장 현황과 인장을 정리한 성과는 민길홍, 앞의 논문(2015), pp.85-86.

14 ‘하암’ 인장본 책거리의 존재는 부산박물관 이성훈 학예사께서 알려주셨다.

표 6. 석당 공방 책거리에 보이는 필통과 편지봉투 도상

0.가회초본	1.국박	3.마이아트	5.김종춘	8.민병우	10.호림	11.공사관	9.고정애	6.선문대	2.하버드
									

마지막으로 초산부사와 같은 관직을 새긴 인장도 확인된다.¹⁵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화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전략으로 은인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책거리의 기물 안에 인면을 숨긴 전통이 지속된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석당 인장이 그려진 책거리가 1920년대 이후로도 하나의 군을 이루며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IV. 석당 공방 책거리에 나타난 개인 정보

국립중앙박물관 〈민화 책거리〉 12폭 병풍에는 ‘석당’ 인장 외에도 ‘완산학사’라는 인장과 ‘부안군 내 무오오월’이라고 적힌 편지 봉투가 눈에 띈다. 이는 이 작품을 주문한 인물이 ‘완산학사’라 불렸거나 부안에 사는 인물이었음을 상상하게 만든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석당 계열 책거리는 초본을 활용하여 대강의 열개를 완성했음이 분명하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세부 묘사 부분은 주문화로서의 성격을 띠며 半기성화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기성화는 ‘本’에 의거한 대략의 도안 위에 주문자의 요구나 작가의 임의적 선택을 통해 세부에 변주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지봉투가 꽃힌 필통은 석당 책거리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도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인데 이 표를 보면 가회 초본에는 봉투에 따로 글씨가 없다. 선문대 본과 하버드 본에도 글씨가 없고 고정애 본에는 훗날 글씨를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김종춘 본과 민병우 본은 ‘扶安郡 扶寧 金善□’이라는 수신인이 동일할 뿐 아니라 초본도 거의 일치한다. 호림 본과 공사관 본은 초본이 완전히 일치하여 ‘扶安郡扶 金’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안군 부녕’의 ‘김씨’ 계열로 표기된 건은 총 4점이며 부안이 언급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하여 총 5점인 셈이다. 이는 부안이라는 주소와 김씨라는 성이 책거리 주문자의 개인 정보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사람의 주문자가 거의 동일한 책거리 5점을 주문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이 다섯 점의 ‘부안’ 계열 책거리를 그린 작가들이 가회민화박물관 초본과 달리 ‘부안군 부녕 김’이라는 정보

15 ‘초산부사인신’ 인장은 칸옥선 故고재식 대표의 도움을 받아 읽을 수 있었다.

표 7. 책거리에 보이는 피봉 주소와 이름

			
1. 寺洞(국립민속박물관)	2. 畿營(국립민속박물관)	3. 鍾山 永興(조선민화박물관)	4. 林承曄(프랑스 기메미술관)
			
5. 鶴亭 隱湖(삼성미술관Leeum)	6. 金判書(선문대박물관)	7. 五柳村(개인 소장)	8. 五柳村(가회민화박물관)

를 포함한 초본을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마이아트 본에 ‘井邑郡 趙’라는 새로운 수신인이 적혀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부안과 정읍은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한 지역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있는 ‘완산학사’ 인장 속 ‘완산’의 위치까지 고려하면 부안, 부녕, 정읍, 완산은 모두 현재의 전주 문화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러한 도상들이 완전한 개인 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가 혹은 주문자의 연고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책거리 중에는 물론 특정 주문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미술관 Leeum에 소장되어 있는 〈豹皮帳幕册架圖〉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책가도〉를 예로 들 수 있다. 〈표피장막책가도〉는 이 작품 속 책에 보이는 두 수의 詩가 眞靜國師 天頊(1206~1294)의 작품으로 훗날 이 시집을 베껴 쓴 이는 丁若鏞(1762~1836)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논의된 바 있다.¹⁶ 따라서 이 작품 속 편지봉투에 적힌 ‘鶴亭 靜座下 隱湖’와 ‘待几’라고 적힌 정보 또한 특정 개인의 흔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표 7-5).¹⁷ 병풍의 겉면에 ‘雲峴宮 所藏’이라고 적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책가도〉의 경우 홍선대원군 李崐應(1820~1898)이 주문한 것이 확실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소라 모양의 술잔인 ‘壽進寶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865년 경복궁 중건 때 이 役事가 천명임을 강조하는 데에 동원된 유물이었다.¹⁸ 따라서 이 책거리 작례들은 정약용과 이하응이라는 역사적

16 〈표피장막책가도〉의 도판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민, 「리움미술관 소장 표피장막책가도 속의 다산 친필시집」, 『문헌과 해석』77(2016), pp.171-184.

17 편지봉투 도상에 대해서는 한세연, 「19세기 책가도의 새로운 경향 -〈호피장막도〉를 중심으로」, 『美術史學』35(2018), p.202.

18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책가도〉의 도판 및 내용에 대해서는 김취정, 「高宗 2년(1865) 『壽進寶酌記』 제작에 대한 一考察」, 『郷土서울』88(2014), pp.113-119.

인물들에 의해 주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석당 계열 책거리처럼 서간의 皮封에 수신인의 주소, 관직, 姓을 노출하여 개인 정보를 드러낸 사례도 여럿 전한다. 현재 남아 있는 작례를 모아 보면 寺洞, 畿營, 鍾山 永興, 五柳村 같은 지명을 사용한 유형이 있다. 아울러 承旨, 察訪, 府使 같은 관직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¹⁹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책거리 8쪽 병풍> 2점에는 각각 ‘寺洞 □□’, ‘尙□□ 畿營下’라는 글귀가 적힌 편지 봉투가 보인다(표 7-1~2). 경기 감영과 서울 사동이라는 주소가 노출된 것이다.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책거리 7쪽 병풍(1쪽 손실 추정)>에는 ‘鍾山 永興 吳察訪’이라 적힌 편지 겹봉이 보인다(표 7-3).²⁰ 프랑스 기메 박물관 소장 <책거리 병풍>에는 ‘□洞 平倅 上書 朴 承旨 宅 侍下人 開坼’이라는 기록이 있다(표 7-4).²¹ 이 작품들을 소개한 연구자들은 오찰방과 박승지가 실존하는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가 주문자에 대한 인적 정보와 그들의 취향을 드러내는 장치라 보았다. 그런데 편지 겹봉의 정보가 석당 책거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군이 보인다. <표 7-7~8>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개인 소장 본 책거리에 ‘五柳村 江李生謹 陶先生 靜案下’라 쓰인 것에 반해 가회민화박물관 본에 ‘五柳村 江南李生 陶先生 靜案下’라 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는 오류촌의 강남 이생이 도선생에게 보낸다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江南’과 ‘謹’자에서 글자의 출입이 다르다.²² 이는 동일한 초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범한 실수 혹은 의도적 변주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책거리에 개인 정보가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품 자체를 주문화로 보는 것에 무리가 따름을 시사한다. 따라서 작품에 보이는 문자 정보들이 단순히 견본(template)에 따른 선택이었는지 특정 주문자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례마다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석당 계열 본에 보이는 지명이나 별칭 또한 일부 화가 및 공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은 초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주일 것이라 생각된다.

V. 석당 공방 책거리에 보이는 침단 제품

석당 책거리에는 유독 20세기 초반 국내에 유입된 침단 제품의 도상이 등장한다. 가장 눈에 띄는 바는 금테 안경, 만년필, 회중시계, 탁상시계, 반지이다. 전통 책거리에는 붓, 자명종, 산호걸이 시계, 학다리 玳瑁 안경의 등장이 흔했다. 그런데 석당 계열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던 또 다른 계

19 책거리에 나타난 개인 정보와 관련한 논의는 김수진, 「민화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방법론 제언: 공방과 초본을 중심으로 한 접근」, 『민화연구』7(2018), pp.79-81.

20 종산은 함경도 중성의 옛 이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본수, 「[이야기로 보는 책거리] ⑨ 민화 책거리」, 『경기신문』, 2012년 5월 21일자 기사.

21 강우방, 「위대한 명화, 사랑의 책거리」, 『월간민화』19(2015.10.).

22 동일 초본을 쓴 개인 소장 본 및 가회민화박물관 본 책거리의 도판 및 자세한 내용은 김수진, 앞의 논문(2018), p.80.

보의 수입 물건이 등장한다. 특히 이들은 전대의 책거리에 등장하는 手功이 들어간 단 하나뿐인 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기성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표 8>에 보이는 것처럼 하버드 소장본에는 필통에 붓이 아니라 만년필이 꽂혀 있어 주목된다. 만년필은 1897년에 미국의 루이스 워터맨(Lewis E. Waterman, 1837~1901)의 제품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처음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테 안경은 국박 본, 하버드 본, 마이아트 본, 김종춘 본, 선문대 본에 보인다. 고려미술관 본과 고정애 본에 전통적인 대모 안경이 그려진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20세기 전반까지도 안경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 돋보기가 아니라 개인의 시력에 따라 맞춘 근시 안경은 분실하거나 습득하게 되면 신문 광고를 낼 정도였다. 안경을 전문적으로 소매치기하거나 전당포에 잡히는 일도 있었다.²³ 전통적인 대모 안경이 아닌 금테 안경은 서양에서 수입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서양 물건을 취급하는 점포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점포에서 안경 외에도 <표 8>에 보이는 금반지(金指環), 걸계시계(掛鍾), 탁상시계(坐鍾), 회중시계가 모두 취급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1904년 9월 16일 『皇城新聞』에 게재된 광고이다.

美國우루사무 瑞西다우한스 懷中時計各種 右物品을다운센도 商會와 特約하고 皆製産地에서 直接輸入하야 廉價로 販賣함 各國懷中時計 掛鍾, 坐鍾, 金銀附屬品, 金指環, 金銀赤銅으로 테한 眼鏡, 老近眼兩眼鏡類 時計修理, 原料品其他各種 右物品을 廉價로 販賣하오니 多少를 不拘하고 陸續來購하시옵 寫眞 機械 及附屬品 及原料品 右物品을 今番支店에서 廉價로 販賣하고 仁川에서는 長野寫眞館에서 販賣함 寫眞器輸入商大坂上田商店代理店 仁川各國居留地 時計商 都, 散賣 喜多金光堂本店 京城泥岬十六番戶 時計商 都, 散賣 喜多金光堂支店 主任 織居加一 今番寫眞材料가 到着함

1. 국박	2. 하버드	3. 마이아트	5. 김종춘	6. 선문대	7. 일본고려	9. 고정애
						
1. 국박	1. 국박	4. 케이옥션	5. 김종춘	2. 하버드	5. 김종춘	1. 국박
						

표 8. 석당 책거리에 보이는 안경, 회중시계, 만년필, 반지 도상

23 『독립신문』 1896년 8월 6일 「팔월 수일 야유기 삼거리 교변쇼 압해서 순검이 조흔 안경 하나를,에는 야주개 삼거리에서 좋은 안경을 주웠으니 찾아가라는 기사가 보인다. 1916년 9월 5일 『每日申報』에는 안경을 훔친 소매치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1916년 3월 16일 『매일신보』에는 18금 안경을 전당포에 잡혔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도 19. 월섬 시계, 1895~1905년 내장원 주문



도 20. 백범 김구 월섬 회중시계, 직경 45mm,
백범김구기념관, 국가등록문화재 제4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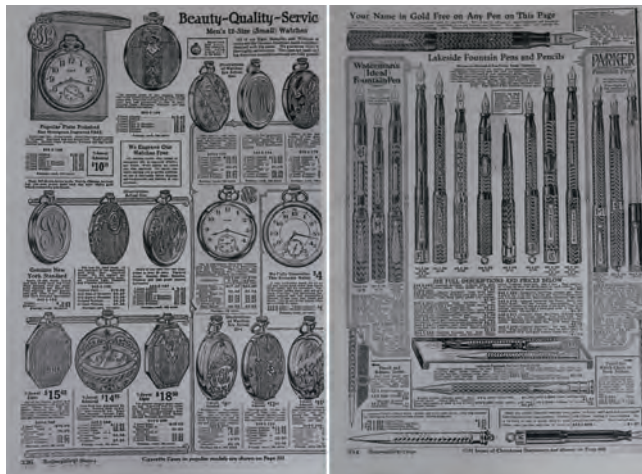
이 광고는 喜多金光堂이라는 점포에서 미국과 스위스(瑞西)에서 생산된 물건을 직접 수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광고의 첫 줄에 나오는 미국 ‘우오루사무’는 월섬(Waltham)社를 의미하는데 이곳은 1850년에 창업하여 1957년까지 영업한 미국의 대표적인 시계 회사였다. 월섬 사는 20세기 초반 제물포에 지점을 두고 조선 신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월섬은 『황성신문』에만 수십 차례의 광고를 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04년 9월 16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월섬 시계 중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재정을 운영한 內藏院에서 주문한 것도 있다. 내장원은 1895~1905년에 운영되던 기관이기 때문에 1904년 이전에 이미 월섬 사가 대한제국 황실에서 시계를 주문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도 19). 아울러 이 시계가 ‘내장원’이라는 글자가 시문되어 있고 오얏꽃 문양이 嵌入되어 있는 맞춤 시계라는 점이 주목된다.²⁴ <표 8>에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책거리 속 회중시계에도 오얏꽃 장식이 붙어 있다. 이러한 장식들은 이 회중시계가 대한제국 황실 혹은 이왕실의 주문으로 제작된 물건일 가능성을 보여준다.²⁵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제441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범 김구 회중시계’도 월섬 사 제품이다(도 20). 이 시계는 본래 尹奉吉(1908~1932)이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식 직후에 구입한 것이다. 4월 27일 윤봉길은 거사를 위해 홍커우(虹口) 공원으로 떠나면서 이 시계를 金九(1876~1949)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본 시계는 김구의 유품인 동시에 윤봉길의 유품인 셈이다. 이 시계는 줄 끝에 작은 나침반이 달려 있고 은도금이 되어 있다. 덮개를 열면 열두 방위가 한자로 표시되어 있어 월섬사에서 처음부터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제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당시 동아시아에 미국산 물건들이 활발히 유통되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서양인이 직접 점포를 열고 영업했던 테일러 상회(W.W.TAYLOR & Co.), 大昌洋行 같은 곳들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²⁶ 이들은 물

24 본 시계에 대한 보도는 2014년 3월 『주간조선』 2297호에 실린 황은순·홍근혜 기자의 「고종황제와 엄비의 황금시계? 대한제국 이화문양 회중시계 추적기」 참조.

25 대한제국기 및 이왕실의 오얏꽃 문양에 대해서는 정지희,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李花紋의 변화와 宮家紋의 등장」, 『美術史學』39(2020), pp.243-270.

26 서양의 물건을 국내에 수입한 회사와 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최지혜, 「한국 근대 전환기 실내공간과 서양 가구에 대한 고찰-석조전을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p.129-138.



도 21.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 & Co.) Catalogue No.97, 1922



도 22. 월섬 회중시계 광고지, 20×27.7cm, 인천광역시 중구청 대불호텔전시관

건을 직수입하는 방식 외에도 우편 통신 판매를 통해 물건을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테일러 상회가 이용하던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 & Co.)를 예로 들 수 있다. 1872년 창업한 이 미국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주문자가 카탈로그를 보고 물건을 골라 일정 서식에 따라 고유번호를 쓰고 수표를 보내면 물건을 배달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따라서 카탈로그에는 꽤 정밀하게 그려진 삽화가 포함되어 있어 고객에게 친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했다. 1922년 출간된 몽고메리 워드 카탈로그에는 만년필, 안경, 반지, 회중시계, 탁상시계, 패종시계의 정교한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도 21).²⁷ 이러한 삽화의 도안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책거리 화가들에게 실제 물건의 유통과 함께 하나의 시각적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월섬 사가 조선 신사들을 대상으로 만든 광고지에도 정교한 시계 삽화와 함께 ‘Korea comes to Waltham for time’이라는 카피 하에 ‘the most reliable watch to keep time on our new railroads’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도 22).²⁸ 19세기 말 영국에서 철도가 개발되자 표준 시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까지 시간은 교회나 城에서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려 상대적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 모두가 정확한 단일 시간 체계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회중시계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중시계는 ‘철도시계(railway watch)’라는 별명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12월 27일 최초로 경부철도가 완공되었고 1905년에 그 일부가 개통되었다.

27 몽고메리 워드 카탈로그에 대해서는 최지혜, 「테일러상회의 무역 활동과 가구-전통가구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학』39(2020), p.272 참조. 1922년에 출간된 몽고메리 워드 카탈로그 영인본은 최지혜 박사 소장본을 열람하였다. 최지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8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월섬사에서 만든 시계와 광고지(유물번호: 022580, 022578)가 소장되어 있다.

월섬 사가 『황성신문』에 1904년 9월 16일부터 집중적으로 회중시계 광고를 실은 것도 당시 철도 개통 소식에 반응한 결과였을 것이다. 조선 신사의 입장에서조차 철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계를 구입하는 일이 급선무라 느꼈을 것이다.

석당 책거리에 포함된 첨단 제품의 도상들은 20세기 전반 조선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이 소유했거나 욕망했던 물건의 면면을 보여준다. 이 중에는 조선이 전통적으로 교역했던 중국과 일본이 아닌 저 머나먼 미국과 구라파에서 유입된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책거리에 회중시계와 탁상시계의 도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조선 사회에 시계의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방증할 것이다. 따라서 석당 책거리는 조선 사회가 기차와 표준시를 공유함으로써 근대로 편입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응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대의 책거리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공품이 그려졌다면 석당 책거리에 재현된 물건들은 대량 생산의 산물로서 구입이 가능한 商品이었다. 책거리에 재현된 시력을 교정해주는 안경과 휴대 가능한 만년필의 확산은 조선인들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석당 책거리는 조선에 수입되는 물건이 더 이상 중국과 일본을 거치지 않게 된 교역 환경의 변화, 중화가 무너진 자리를 구미가 대체하는 외교 관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예증하는 물질문화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Ⅵ. 20세기 초반 책거리의 제작 양상과 계보

책거리 연구에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연대 추정이다. 책거리는 시각적 환영을 추구하는 장르로서 화면에 작가의 이름, 제발, 육십갑자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책거리에 제작 연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작품의 제작 시기에 대한 단서는 작품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다만 책거리로 독보적인 명성을 누린 이형록만이 세 가지 이름의 은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품의 제작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형록의 책거리는 제작



도 23. 이덕영, 책거리 10폭 병풍, 건본채색, 각 143.7×38.5cm, 국립중앙박물관(중 7145)



도 24. 문방도 4폭 병풍, 19~20세기 전반, 지본채색, 193×240cm, 국립고궁박물관

시기와는 별개로 형식상 크게 두 종류의 작품을 남겼다. 하나는 책꽂이를 포함하여 눈속임을 의도한 트롱프뢰유(Trompe-l'œil)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책과 기물을 띄엄띄엄 배치한 나열 형식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이형록의 손자인 李憲泳(1870~1907 이후, 1895~1904 화원 활동)이 할아버지의 도안을 거의 그대로 따른 작품을 남긴 바 있다(도 23).²⁹ 이 작품은 사실상 이덕영의 인장이 없었더라면 이형록의 것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수준이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즐겨 사용하던 도상을 조합하여 수준 높은 궁중 양식의 책거리를 완성했다.

이형록-이덕영 가문은 18세기부터 6대에 걸쳐 화원 화가를 배출한 전주 이씨 집안이다. 이 중에서도 이형록의 조부 李宗賢(1748~1803), 부친 李潤民(1774~1841)은 책거리 화가로 명성이 높았다.³⁰ 이렇게 특정 집안에서 유독 여러 명의 책거리 화가를 배출했다는 것은 이 집안이 책거리 제작에 필요한 초본과 기법을 독점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덕영의 작품에 보이는 도상은 모두 이형록이 완성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특히 수선화 화분, 필통, 산호걸이 시계는 이형록이 가장 자주 그리던 시그니처(signature)라 할 만한 소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안은 작가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 다수의 책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궁중회화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는 작품도 있지만 도안만 이형록 양식을 따른 채 저렴한 안료로 조잡하게 그려낸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29 10폭에 보이는 檜만이 유일하게 이형록 도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 책거리를 주문한 이가 실제 소유한 물건이거나 주문자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기물일 가능성이 있다.

30 이 가문의 계보에 대해서는 Kay E. Black and Edward W. Wagner, 앞의 논문(1993), p.67, 표1; 이정은, 「이형록과 19세기 조선 화단」(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122.

이에 반해 석당 계열 책거리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한 도상은 기명과 절지이다. 전대의 책거리에 수선화 水盤 정도가 나왔던 데에 반해 석당 계열 책거리에서는 꽃과 도자기를 다양하게 조합한 꽃꽂이 도안이 십 수 건 등장한다.³¹ 아울러 순무, 밤송이, 옥수수, 배 같은 먹거리를 도상으로 포함한 것 또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명절지도가 유행하면서 다양한 기명과 절지 도안이 다른 화목에 적용된 결과일 것이다.³² 그런데 20세기 초반 조선 왕실에서 작성한 문헌 기록 가운데에 ‘節枝圖書屏’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절지도서병’이라는 명칭은 ‘절지’와 ‘도서’를 강조하여 기존에 있던 ‘冊巨里’ 혹은 ‘文房圖’라는 物名과 분명한 차이를 둔 것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창덕궁에서 유전한 책거리로 유독 도자기 병에 절지된 꽃을 꽂은 도상이 강조된 작품이 있다(도 24). 아마도 이러한 계열을 기존 책거리와 구분하여 절지도서병이라 부른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³³ ‘절지도서병’이라는 명칭은 장서각 소장 『各庫物品成冊』에 보이는데 이 책은 承寧府에서 작성한 것이다. 승녕부는 1907년 8월 11일에 설치된 기관으로 上王이 사용하는 물건의 관리를 담당했다. 사실상 조선시대에 생존해 있는 전대의 왕을 가리키는 ‘상왕’은 오직 태조와 고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기관은 1400년과 1907년에 각각 몇 년씩 운영된 것이 전부였다. ‘절지도서병’은 『각고물품성책』에 등장하는 22곳의 창고 가운데 外閣監 西庫 第一庫에 수장되어 있었다. 이 창고에는 주로 詩箋紙와 唐紙 같은 종이류가 보관되었는데 절지도서병은 자수 병풍 한 점과 함께 이 창고에 수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절지도서병’은 적어도 1907년 이전부터 왕실에서 수장하던 것이 분명하며 이는 1907년 이전에 이미 화원들에 의해 책거리 도상에 기명과 절지를 더한 도안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석당 계열 책거리는 일종의 절지도서병으로서 책거리와 기명절지 도상이 합쳐진 양상을 보인다. 20세기 전반에는 이형록 계열과 절지도서 도안과 같이 책거리에 있어 몇 가지 계보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 도안은 서로 경쟁하고 함께 유행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VII. 책거리에서의 전통 및 혁신

국립중앙박물관에 등록된 석당 책거리의 유물명은 ‘민화 책걸이’다. 이는 입수 당시 기관 측에서 이 책거리가 궁중회화 계보가 아니라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 이름을 붙였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도화서 체계가 사라진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민화’라는 제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에 도화서가 폐지되고 화원 화가라는 직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20세기 전반에는 설령 왕실 소

31 안휘준은 책거리의 발전을 네 단계로 나눈 후 꽃이 등장하여 장식성이 강화된 유형을 마지막 단계로 보았다. 안휘준, 「8. 우리 민화의 이해」, 『한국 회화의 이해』(서울: 시공사, 2000), pp.357-358.

32 정병모는 이에 대해 화단의 유행이 책거리에서 기명절지도로 옮겨간 것이며 기명절지도의 출현이 통속화된 민화 책거리의 유행을 견제했다고 보았다. 정병모, 앞의 책(2020), pp.248-259.

33 ‘절지도서병’라는 물명을 소개한 연구는 윤진영, 「조선후반기 궁중책가도의 편년적 고찰」, 『민화연구』3(2014), pp.64-65.

용 미술이라 할지라도 민간 화가가 제작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도화서 소속 화원화가의 작품만을 궁중회화로 규정한다면 사실상 20세기 그림은 설령 궁중 양식을 띠었다 해도 모두 민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민화를 특출나지 못한 화가가 그린 치졸한 그림으로 본다면 사실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책거리는 ‘민화’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이 작품은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묘사했으며 첨단 수입 상품의 도상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비단 바탕에 금분을 써서 반지와 안경 재질에 보이는 금속성까지 살려냈다. 화면의 구성과 필력을 고려해도 높은 기량을 가진 화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한 것이 분명하다. 이 계열 작품은 기교가 떨어져 잘 못 그린 그림이 아니며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 낸 치졸한 결과물도 아니다. 무엇보다 도상에 대한 예술적 도전과 고민 없이 전형을 반복한 매너리즘 그림이라 할 수도 없다. 다만 책과 물건을 그린 책거리의 전통을 따르되 이를 당대에 맞게 변주하고 현대화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책거리란 본래 고가의 사치품, 손에 넣기 어려운 희귀품,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을 화면 가득 그린 그림이다. 책거리의 감상은 진귀한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재미에서 시작한다. 그로 인해 익숙하고 흔한 물건이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도안을 그려 넣는 것은 책거리의 태생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수준 높은 ‘궁중회화’라 믿어온 이형록 계열 책거리에는 오히려 매너리즘에 갇혀 전형을 반복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형식과 기교적 측면에서 책거리의 전통이 계승되었을 뿐 책거리 고유의 예술적 도전이나 도안상의 혁신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십 년간 동일한 도상을 반복한 이형록-이덕영 계열의 작품은 책거리의 예술적 성취를 해친 측면이 있다. 이 계열 작품들은 민간에서 자기 복제를 반복하며 ‘정통 궁중 계열의 책거리’를 욕망한 이들을 통해 소비되었다. 심지어 이 계보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가장 안정된 인기를 누리며 가장 높은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석당 계열 책거리는 근대로 편입하는 조선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석당 책거리 한 점을 통해 중화의 몰락과 구미의 부상, 새로운 외교 관계 및 통상 환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당 책거리에 재현된 도안은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이 아니라 구미 수입품으로 바뀌었고 수제 완상물이 아닌 공장에서 만든 기성 제품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물질문화가 시각화된 결과로서 이 작품군은 단순히 ‘민화’ 범주 이상의 문화사적 위상을 보여준다. 이는 도발적 색감과 낯선 도상을 앞세운 석당 계열의 책거리가 전통의 아성에 대항하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비싸고 진귀하고 쉽게 구하지 못하기에 욕망할 수 밖에 없는 물건을 그리는 책거리의 태생적 본령에 충실한 문화적 산물이었다. 책거리 그림 자체가 민화의 영역으로만 논의되던 시절이 불과 30년 전이다. 이제 책거리의 발굴 성과와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만큼 보다 다양한 시각과 논점이 제시될 차례이다. 본 연구가 하나의 사례로서 학계에 기여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서울: 시공사, 2000.

월간민화, 『숨은 보석 빛을 찾다: 민화인 개인소장 '좋은 민화' 전』, 서울: 디자인팀, 2019.

【논문】

강우방, 「위대한 명화, 사랑의 책거리」, 『월간민화』19, 2015.

김수진, 「민화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방법론 제언: 공방과 초본을 중심으로 한 접근」, 『민화연구』7, 2018.

김취정, 「高宗 2년(1865) 『壽進寶酌記』 제작에 대한 一考察」, 『郷土서울』88, 2014.

민길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 필 책가도: 덕수4832 〈책가도〉를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16, 2015.

박본수, 「[이야기로 보는 책거리] ⑨ 민화 책거리」, 『경기신문』, 2012년 5월 21일자 기사.

윤열수, 「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의 지역적 특성과 작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윤진영, 「조선후반기 궁중책가도의 편년적 고찰」, 『민화연구』3, 2014.

이정은, 「이형록과 19세기 조선 화단」,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이원복, 「책거리 소고」, 청여 이구열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근대한국미술논총』, 서울: 학고재, 1992.

정민, 「리움미술관 소장 표피장막책가도 속의 다산 친필시첩」, 『문헌과 해석』77, 2016.

정병모, 「조선 후기에 유행한 정물화- 문방도, 책거리, 책가도 그리고 기명절지」, 송암미술관, 『상상의 벽 너머 낙원으로 갑니다』, 인천: 송암미술관, 2019.

_____, 「기명절지는 왜 중국풍으로 돌아갔나: 책거리와 기명절지, 닮은 점과 다른 점」, 『세계를 담은 조선의 정물화 책거리』, 서울: 다함미디어, 2020.

정지희,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李花紋의 변화와 宮家紋의 등장」, 『美術史學』39, 2020.

최지혜, 「한국 근대 전환기 실내공간과 서양 가구에 대한 고찰- 석조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테일러상회의 무역 활동과 가구-전통가구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학』39, 2020.

한세연, 「19세기 책가도(冊架圖)의 새로운 경향-〈호피장막도(虎皮帳幕圖)〉를 중심으로」, 『美術史學』35, 2018.

황은순 · 홍근혜, 「고종황제와 임비의 황금시계? 대한제국 이화문양 회중시계 추적기」, 『주간조선』2297, 2014.

【영문】

Black, Kay E., *Ch'aekkori Painting: A Korean Jigsaw Puzzle*, Seoul: Sahoipyiungnon Academy, 2020.

Black, Kay E. and Edward W. Wagner, "Chaekkori Paintings: A Korean Jigsaw Puzzle," *Archives of Asian Art* 46, 1993.

Kim, Sunglim, "Chaekgeori: Multi-Dimensional Messages in Late Joseon Korea," *Archives of Asian Art* 64(1), 2014.

Tradition and Innovation: Seokdang Workshop and the Chaekgeori Challenge

Kim Soojin *

This paper, based on “Minhwa Chaekgeori” paintings from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dentifies and discusses fourteen similar work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ections as products of the Seokdang workshop. First, the relevant paintings are identified as products of the workshop known as Seokdang (石堂, literally “stone hall”) by the workshop’s seal that is stamped on them. Second, analysis of the iconography indicates that the paintings were likely produced in the 1920s. Third, research on certain geographic names and addresses associated with this group of paintings suggests that they might not have been separately commissioned, but are rather examples of partially “ready-made” paintings. Fourth, the paper discusses how the designs of various cultural products in these paintings reflects contemporaneous changes in Korea’s diplomatic and commercial relations, i.e., the decline of relations with China and rise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inally, a comparison of the Seokdang *chaekgeori* paintings with the popular *chaekgeori* paintings produced by Yi Hyeongrok and Yi Deokyeo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uccession of tradition and innovation in visual culture.

Keywords: *chaekgeori*, *chaekgado*, secret seal, Seokdang, preparatory drawing

*Visiti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